

제8대 이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은 제8대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과 응모해 주신 분들, 그리고 관계기관에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단은 이사장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하여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위원의 추천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절차상 잘못이 확인되었고, 이 때문에 위원회가 진행한 모집과 심사, 후보자 추천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외부 법률자문). 또한 공단은 응모하신 분들의 개인정보를 심사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드렸으나, 위원회의 비공개 심의 내용이 공식 발표 전에 보도되어 응모하신 분들의 성명과 평가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공단의 책임입니다. 공단을 믿고 응모해 주신 분들께 선임 절차가 늦어지고 다시 진행될 수 있는 불편과 마음의 부담을 드리게 된 점, 그리고 공단의 확인 소홀로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단은 다음과 같이 바로잡겠습니다.

- 첫째**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사장 선임 절차를 새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의 추천 근거를 입증자료로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 둘째** 위원 추천 시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심의자료 관리와 비밀유지 서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관련 규정을 고치겠습니다.
- 셋째** 심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경위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겠습니다.
- 넷째**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공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업무 절차를 원칙대로 다시 점검하여, 군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6. 10. 14.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